

# ‘아가페(ἀγαπή)’ 상담: 다양한 기독교상담 이론들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태수 (천안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I. 여는 글

지금까지 기독교 상담(Christian counseling)이나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과 관련된 상담의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고 소개되어 왔다. 필자는 본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서적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Paul Morris의 사랑요법(love therapy)을 정독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영어단어 love라는 표현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love의 차원을 초월하는 보다 심오하고 영적인(spiritual) 깊이를 내포하는 용어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agape)라는 단어이다.

이런 착상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찾아서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용어에 대한 헬라어 성경의 표현을 확인해 본 결과, ‘아가페’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은 횟수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아가페’ 상담이라는 표현을 신조어로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소개하고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먼저 ‘아가페’ 상담의 개념 부분에서 ‘아가페’라는 용어의 개념과 성경적 근

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아가페’ 상담의 구체적 목표들을 제시할 것이며, 연관시킬 수 있는 학자들의 이론도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아울러 상담의 대가(great counselor)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나 상담사례를 ‘아가페’ 상담으로 분류하고, 적용부분으로써 이 상담의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을 성경 속에서 제시해 보겠다.

## II. 펴는 글

### 1. ‘아가페’ 상담의 개념

#### 1) 용어

‘아가페(ἀγαπή)’ 상담은 ‘아가페’와 상담이라는 용어가 합성된 개념이다. ‘아가페’라는 용어는 유행가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세속적 차원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다. 첫째, 에로스(eros)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성적(性的) 차원의 사랑으로 혼자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이성(異性)이 필요한 사랑이다. 이 에로스의 표현은 신약 성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필리아(philia)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일종의 정(情)으로써의 사랑이다. 우정이나 동료애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스톨게(storge)는 부모와 자식간에 느끼는 차원의 사랑이며 에로스나 필리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희생적이고 비이기적인 차원의 사랑이다.

반면에 ‘아가페’(agape)는 에로스, 필리아나 스톨게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신적(神的) 차원의 사랑이며 가장 고차원적 사랑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필요에 의한 상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주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진면목을 삶으로 보여 주셨다.

## 2) 성경적 근거

‘아가페’ 상담이라는 이론을 필자가 전개할 때, 첫 번째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다. 그 내용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인데,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용어의 헬라어는 ‘아가페(ἀγαπή)’이다. 위의 내용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신 것이다. 율법에 능통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test)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율법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언급하신 것은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이 때 ‘이웃’을 상담에 적용시킨다면, ‘내담자(來談者)’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순서를 고려해 볼 때, ‘아가페’ 상담에서 우선순위(priority)는 분명하다. 먼저 상담자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교제를 가져야 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인도(guidance)하심을 따라 상담해야 한다. ‘아가페’ 상담에서 상담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결하고 심오한 지혜를 가지고, 이웃인 내담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으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의 헬라어도 ‘아가페’라는 단어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본고의 후반부에 나오는 ‘아가페’ 상담의 실천방법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하여 바클레이(W. Barclay)는 4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sup>1)</sup> 첫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비(非)이기적으로(selflessly)

1)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5), 150-151.

사랑하셨다. 둘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희생적으로(sacrificially) 사랑하셨다. 셋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해심을 가지고(understandingly) 사랑하셨다. 넷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용서함으로(forgivingly) 사랑하셨다. 이 내용을 ‘아가페’ 상담<sup>2)</sup>에 적용시켜 본다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향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또한 내담자에 대하여 이해심을 가지고 공감(empathy)하며 관용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 2. ‘아가페’ 상담의 목표

1) ‘아가페’ 상담의 첫째 목표는 내담자의 생명(生命)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생명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3가지 나온다. 첫 번째 단어는 프쉬케( $\psi \upsilon \chi \eta$ , Psyche)이다. 그 의미는 호흡, 생명(력), 영혼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육체적 생명(마 2:20), 인간이나 짐승들의 생명(고전 15:45), 또는 영혼(눅 12:19) 등등의 용례(用例)가 있다. 신약성경의 ‘프쉬케’는 구약성경의 네페쉬( $\psi \chi$ , nephesh)와 같은 의미이다.

두 번째 단어는 비오스( $\beta \iota \omicron \varsigma$ , Bios)이다.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외적 모습이다. 사용된 사례로는, 생명의 지속(벧전 4:2-3), 생명의 기능(눅 8:14), 생명의 활동(행 26:4)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영생(永生)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세 번째 단어는 조에( $\zeta \omega \eta$ , Zoe)이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프쉬케나 비오스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요한(John)은 이 단어를 36회, 바울(Paul)은 37회나 사용하였다. 이 단어의 의미는 John Wilkinson에 따르면, 시간의 양(糧)과 관련된 생명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부패에 의해 손상되지도 않는 영원과 관련된 질적(質的)인 영생(eternal life)이다.<sup>2)</sup>

이 단어가 사용된 사례로는 영원한 생명(요 3:16), 하나님의 생명(요 5:26), 그리고 크리스천들 속의 그리스도의 생명(고후 4:10-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면, ‘아가페’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

2) John Wilkinson, The Bible and Healing (Edinburgh: The Handsel Press, 1998), 23.

명을 살려낼 수 있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天下)보다 귀하다고 강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명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기며 상담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담자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아가페’ 상담의 둘째 목적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잠 10:12), 두려움을 내어 쫓아준다(요일 4:18). 또한 사랑은 거짓이 없으며(롬 12:9), 마음을 같이 하고(빌 2:2), 오래 참아주는(고전 13:4)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고후 2:8, 요일 3:18) 해야 한다. 또한, 자기 몸과 같이 하며(마 22:39)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마 22:37) 내담자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는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심사숙고한 결과, 생명과 사랑은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진다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즉, 사랑은 생명을 충만하게 하며, 생명은 사랑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빛나간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아가페’ 상담의 세 번째 목표는 내담자를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히브리어 본문(창 1:26, 27)의 ונתמוסדכ ונסלצב(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쉘렘(צלם, chelem)은 구약성서에서 총 16회 정도 나오는 일반적으로 외형적인 모양을 뜻하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삼상 6:5). 그러나 H. L. Creager 는 창세기 1장 본문에서 이 용어가 인간의 외형적인 신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구절에서 사용된 쉘렘(צלם)의 용법에 대해서 보다 내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sup>3)</sup> 신학적으로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 사이의 차별성을

3) Herold L. Creager, The Divine Imag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74), 104.

의미하는 말이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독특한 인간론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특별히, Creager는 이러한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다른 피조물과의 특수성을 자아의식, 가치판단, 도덕적 결단, 사회적인 책임 등을 들고 있다.<sup>4)</sup> 반면에, 폰 라드(Gerhard von Rad)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정신적 내면성(內面性)이라고 간주하며, 인간의 권위나 그의 인격, 또는 도덕적 결단이라고 보는 견해는 그 타당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sup>5)</sup>

하나님의 형상(창 1:27)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 특성이며, 인간을 하등동물들과 구별시켜 주는 결정적 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 있고, 유한하지만 무한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상담에 연관시켜 본다면,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다고 본다. Carl Rogers는 내담자 중심적 상담방법을 소개하면서, 인간을 너무 낙관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본고의 ‘아가페’ 상담은 단순한 인본주의적 상담의 방법과는 구별된다. 인본주의는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세상의 세파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기 쉬운 시대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전인적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가페’ 상담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 3. ‘아가페’ 상담의 이론적 배경

#### 1) Duncan Buchanan

‘아가페’ 상담과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학자는 Duncan Buchanan이다. Buchanan 역시 그의 책에서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가페’의 헬라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6)</sup> 첫째, ‘준

4) Creager, 104.

5)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1), 56.

6) Duncan Buchanan, The Counselling of Jesu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5), 132.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돌본다. 셋째,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배려하며 희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 배려적, 그리고 헌신적 사랑이라는 것이다.

또한 Buchanan은 다양한 사랑의 유형들 가운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이(only God) 주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다시 말하자면, ‘아가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적(神的)인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Buchanan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약간의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아가페’ 사랑이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신적(神的)인 차원의 위대하고 숭고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을 너무 초월적이고 신적(神的)인 차원의 사랑으로만 국한시킨다면,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차원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다. Buchanan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가페’ 사랑의 극치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필자는 ‘아가페’ 사랑과 유사한 수준의 사랑을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은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차원의 사랑이라면, 사람들은 그런 차원의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조차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과 관련하여 Buchanan은 상담자의 최우선적 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점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8)</sup>

## 2) Jay E. Adams

필자가 ‘아가페’ 상담과 관련하여 많은 기독교 상담학자들 가운데 Adams를 인용하는 이유는 Adams의 경우, 자신의 상담이론인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을 전개할 때 그 근거를 성경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필자가 ‘아가페’ 상담의 이론을 전개할 때, 성경의 본문

---

7) Buchanan, 133.

8) Buchanan, 134.

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Adams는 기독교상담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상담의 기초적 목적은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둘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Adams는 성경적인 사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고 있다.<sup>10)</sup>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책임적 관계이다. 사랑은 책임을 조건으로 하는 하나의 관계성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책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Adams에게 있어서 ‘권면적’ 상담의 목적은 성경 속에 잘 설명되어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사랑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1)</sup>

### 3) Paul Morris

‘아가페’ 상담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학자는 Paul Morris이다. 왜냐하면 Morris는 ‘Love Therapy’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필자로 하여금 영어의 ‘Love’라는 의미보다는 헬라어의 ‘아가페’라는 용어가 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Morris는 의사(醫師)로서 ‘사랑요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12)</sup> 사랑요법은 사랑이 풍성한 위로자이며 전능자이신 성령의 힘으로 하는 치료방법이다. 그것은 무뚝뚝한 ‘권위 중심’의 상담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에 기초한 상담이다. 상담자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실까?’하는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한다. 이런 사랑요법의 목적은 내담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평안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랑요법은 치료과정에 상담자의 인격 전체가 포함되는 상

9)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0), 54.

10) Adams, 55.

11) Adams, 55.

12) Gary R. Collins, *Helping People Grow*, 정석환 역, 「카운셀링 가이드」(서울: 기독교출판사, 1988), 287-288.

담방법이다. 또한 사랑요법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상담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과 정서적 건강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해낸다는 것일 뿐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극히 드물게 상담자가 내담자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구절 같은 직접적인 기독교에 관한 것은 상담자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사실 유명한 심리치료자들의 심리학적 원리들은 대부분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다. 그리고 Morris는 Freud의 정신분석(시 4:4)에서부터 게슈탈트(Gestalt)와 같은 많은 심리학적 상담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이론들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 바로 ‘사랑요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 4.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사례

##### 1)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요 4:7-38)

예수께서 유대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 상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께서 전인적(holistic) 차원의 상담을 하셨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그 전인적 차원들은 무엇인지 약술하고자 한다. 첫째, 예수께서는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육체적 차원(physical dimension)의 문제를 다루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은 제 6시이므로 한국 시간으로는 낮 12시에 해당된다. 육체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을 단순한 유대 남자로 간주하면서, 조상인 야곱 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냐고 질문했다(12절).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대답하셨다.

위에서 언급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여인

이 육체적으로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언급하셨다. 여기에서 상담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담자의 육체적 조건과 환경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면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예수께서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정신적 차원(mental dimension)의 문제를 다루셨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자신에게 주도록 간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객관적 표현으로 분석해 본다면, 여인이 요구한 샘물과 예수님의 대답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여인의 정신적 세계를 간파하고 계셨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이다”라고 대답했으며, 나중에는 “네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놀라며 응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면서, 살아온 삶과 정신적 세계의 문제를 언급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여인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셨다.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었다는 것은 의지의 대상인 남편들에게서 행복이나 정신적 안정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인 셈이다.

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적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심오한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셋째, 예수께서는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영적 차원(spiritual dimension)의 문제를 다루셨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 남자로 보았다가, 선지자로 인식이 바뀌었으며, 나중에는 그리스도(Christ)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신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신앙적 차원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예수님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 여인의 관심사는 어느 장소(여인이 말하는 산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으냐는 것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예배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셨다.

예수님의 상담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항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할

때 육체적, 정신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 영적 차원의 문제도 지혜롭게 다루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2) 베드로와의 대화(요 21:3-23)

본문의 말씀은 제자인 시몬 베드로(Peter)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고, 만남의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이다. 이 본문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상담사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인 베드로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차원을 포괄하는 통전적(holistic) 상담 (또는 대화)을 실천하셨던 상황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첫째,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육체적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보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하셨다. 본문 13절에는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표현을 현대적 용어로 바꾼다면 맛있게 먹을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아침식사를 제공하셨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조용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서 상담자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곤경에 처해 있는 내담자를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과 당면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신적 차원의 질문을 하셨다. 본문의 15-17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회 반복하여 질문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이 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처음 2회(15절과 16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표현은 “ἀγαπᾷς με”(agapas me, 아가파스 메)이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표현(17절)은 “φιλεῖς με”(phileis me, 필레 이스 메)로 달라졌다.

반면에, 베드로의 대답은 3회 모두 “φιλω σε”(philo se, 필로 세)로써 동일하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처음과 두 번째 질문에서는 “사랑하느냐?”는 표현에서 “아가파스(ἀγαπᾷς)”를 사용했다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φιλεῖς

(필레이스)”로 바꾸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분명 ‘아가페’ 수준의 사랑과 ‘필리아’ 수준의 사랑은 질적(質的)으로 차원이 다르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신적(神的) 속성의 사랑이지만, ‘필리아’의 사랑은 인간 수준의 평범한 사랑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최고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셨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으로 차원을 낮추시는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이 본문을 통해 상담자가 배울 수 있는 통찰이라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각의 수준과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영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언급하셨다. 본문 18절에 따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바로 뒤에 연결되는 19절에 암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아직 베드로가 생존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견(豫見)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임을 암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해내려 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한다.

위의 내용에서 상담자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라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는 혜안(慧眼)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5. ‘아가페’ 상담의 방법

### 1)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 중에 첫 번째는 언어사용에 관한 것이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사형 집행은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 통치자의 ‘사면한다’는 말 한마디는 복음의 소식이다. 그러나 판사의 사형 언도 한마디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말이다. 사랑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이다. 사랑의 언어는 공감의 언어이며, 이해의 언어이다. 특히, ‘아가페’ 상담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언어는 내담자를 현재의 모습 그대로 수용(acceptance)하고 공감(empathy)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아가페’ 사랑의 언어이다.

말과 관련해, Thomas W. Robertson은 『나이팅게일』(Nightingale)이라는 작품에서 “말은 마음의 지표요, 거울이다”라고 언급하였고, Democritus는 “말은 생명의 영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사용하는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언어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대화내용을 기록해 놓은 ‘대화록’(verbatim)을 왜 기록하고 분석하겠는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고 표현했는지 검토하고 분석하여, 더 나은 상담을 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본문(고전 13:1)에 등장하는 ‘천사의 말’에서 ‘말(ῥηλωσσεις)’은 헬라어에서 다양한 관용어법으로 신약에 약 50회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사전학자들은 3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문법적으로 발성기관인 혀의 의미(막 7:33, 눅 1:64 등등)로 17회 등장한다. 둘째, 혀로 말하는 언어라는 뜻(고전 12:10, 막 16:17, 행 2:4 등등)으로 25회나 등장한다. 셋째, 알아들을 수 없거나 입신(入神) 상태의 발언(행 2:3)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위클리프 성경사전에 따르면, 이 3가지 의미들 중에서 두 번째 혀로 말하는 언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가페’ 상담은 내담자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상담이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 2)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라

‘아가페’ 상담의 기본적인 특성은 내담자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본문(고전 13:4)의 ‘오래 참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μακροθυμει* (macrossuimei)는 능동태의 동사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아주는 행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이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어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용어는 사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였다. 즉, 인간관계에서의 인내에 대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특히, ‘아가페’ 상담을 실천하는 상담자가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listening)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청이란 소극적으로 듣는 행위인 청취(hearing)가 아니라, 내담자의 말을 적극적이고 주의 깊게 듣는 행위이다. 아가페 상담에 있어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경청의 종류들 가운데 ‘공감적 경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13)</sup> 공감적 경청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들을 때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의 세계에 몰입하여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다시 말하자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깊은 공감을 하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경청의 기법이다.

### 3) 친절하게 배려하라

‘아가페’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온유하라(χρηστένται)는 것이다. 이 단어는 ‘낮아지다’ 또는 ‘순종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내적 자세를 의미한다. 겸손과 경건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이라면, 온유는 신(神)과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이다. 친절과 온유의 차이점은 친절(Kindness)이 외적(外的) 행위라면, 온유(溫柔)는 내적인 태도와 심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아가페’ 상담에서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인 온유와 관련하여, 온유한 마음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고자 한다.<sup>14)</sup> 첫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마 11:28-30)을 기억하라. 둘째,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살전 2:7)처럼 하라. 셋째, 주의 종의 마음으로(딤후 2:24) 하라. 넷째, 꾀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범사에 온유함(딤후 3:2)으로 하라. 유능한 상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를 친절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가페’ 상담을 추구하는 상담자라면 내담자를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3) 이기춘외 5인, 「목회임상교육」(서울: 감리교목회상담센터, 1998), 77.

14) 김태수, 「기독교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2), 165.

#### 4) 예의를 지켜라

‘아가페’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의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진지하게 대면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교회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상담자에게 어떤 통찰을 던져줄 수 있다. 고린도교회는 고린도라는 당시에 규모가 큰 항구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고린도교회 내에는 빈부의 격차나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큰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고린도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인들이 종종 식사 모임이나 공동 집회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교인들에게 무례한 행동들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인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한 가지 방법임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같은 교회 내의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라고 권하며 결국은 그 표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권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며 우리의 귀감이 되신다. 하나의 사례(요 8:3-11)를 든다면, 예수께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 여인을 잡아온 군중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말을 사용하여 군중들을 모두 돌려 보내셨다. 그리고 여인과 홀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간음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짐승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셨다. 군중들과는 대조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며, 사악한 죄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용서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우해 주셨다.

#### 5)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상담하라

본문(고전 13:6)에 나오는 진리는 헬라어로 αληθεια(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이다. 이 진리는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는 본문의 진리와의 동일성이다. ‘아가페’ 상담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아가페’ 상담은 일반 상담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가페’ 상담의 특성은 성격적 상담이요 복음적 상담이다.

일반 상담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을 적절히 적용시키면 되겠지만, ‘아가페’ 상담에서는 일반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이론들이 목적은 될 수 없고,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아가페’ 상담에서 목표로 삼는 내담자의 이상적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인격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아가페’ 상담에서 상담자는 해박한 전문지식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담자에게 처방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가페’ 상담은 성경적 상담이요, 복음적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II. 닫는 글

오늘날 심리학과 상담학 분야에서는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부터 시작하여 Carl Rogers의 ‘내담자 중심 요법’과 같은 인본주의적 상담방법이나 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과 같은 성경적 상담방법 등등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범람하는 현상 속에서, 필자는 기독교 상담학적 입장에서 내담자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복음적 상담이론들이 더욱 연구되고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사례들에서 힌트를 얻고 평소의 생각을 정리하여 ‘아가페’ 상담이라는 주제로 다루어 보았다. 첫 장에서는 ‘아가페’ 상담의 개념과 성경적 근거를 다루었고, 두 번째 장에서는 ‘아가페’ 상담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아가페’ 상담과 연관시킬 수 있는 학자들의 이론을 다루어 보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아가페’ 상담의 교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사례를 약간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담방법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힌트를 얻어 제시해 보았다. 본고에서 주장한 ‘아가페’ 상담이론은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이론은 아니고,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복음적, 성경적 상담이론으로써, 더욱 체계화시키고 심화시켜서 하나의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필자에게는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고, 전문상담가들의 도움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K C I

## Abstract

### **'Agape' counseling: A new paradigm among various theories of counseling**

Today various theories in the field of psychology have been introduced: Sigmund Freud's psychoanalysis or Carl Rogers' client-centered therapy. On the other hand, Jay E. Adams who was a Protestant counselor introduced a theory of 'Nouthetic' counseling which was based on the bible as a biblical counseling.

In the midst of various theories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the writer needed to give a presentation an evangelical theory that could give the life and the agape love of Jesus Christ to the client. In this reason, the writer tried to deal with the issue of 'agape' counseling through this thesis. The writer got a hint from Jesus' examples of counseling in the bible and made a new title as a new paradigm of counseling among lots of theories.

In the first chapter the writer deals with the issue concerning not only the concept of 'agape' counseling but also the biblical background of it. In the second chapter there is the purpose of 'agape' counseling. In the third chapter the writer deals with the theories of some scholars in the relationship of 'agape' counseling. In the fourth chapter the writer introduces some examples that Jesus concretely counseled and they could be a standard sample. Finally, the writer handled the concrete ways for effective 'agape' counseling: First, use the language of love. Second, listen to the client carefully. Third, be kind to the client. Fourth, keep good etiquettes. Fifth, counsel as the words of God's truth.

This 'agape' counseling is the first theory that the writer presented as a new paradigm of Christian counseling, but not the last theory that the writer gave a presentation as a completed theory. Therefore,

there is the task for the writer to formulate a system of this 'agape' counseling in the various theories of the 21st century.

Key words: 'agape' counseling, biblical counseling, Christian counseling, listening, empathy.

아가페 상담, 성경적 상담, 기독교 상담, 경청, 공감

K C I